

201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 형]

1	2	2	1	3	1	4	2	5	5
6	5	7	4	8	3	9	4	10	5
11	4	12	3	13	3	14	4	15	4
16	2	17	2	18	2	19	5	20	3
21	1	22	5	23	2	24	5	25	4
26	5	27	4	28	1	29	5	30	2
31	3	32	5	33	3	34	4	35	1
36	1	37	4	38	3	39	1	40	1
41	1	42	2	43	1	44	4	45	5

[화 법]

1. [출제의도] 토의의 절차 이해하기

토의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문제 분석’ 단계는 첫 번째 사회자의 발화 이후에 나타나는 남학생1, 여학생1, 남학생2의 발화에 해당한다. 재능 기부 봉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책 읽어주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것이 재능 기부 봉사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는 문제 분석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에서, 앞서 논의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공감적 듣기의 전략 파악하기

이 대화에서 지아의 이야기에 대한 선생님의 다양한 공감적 듣기 전략이 나타나지만, 자신의 경험담을 활용하여 지아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없다. ② 선생님이 지아의 말에 ‘응’, ‘그래’, ‘아’ 등으로 적절하게 맞장구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선생님의 다섯 번째 발화와 여섯 번째 발화에서 지아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선생님의 네 번째 발화를 통해 지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선생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과 걱정스런 표정을 사용하여 지아의 말에 호응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 문]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의 모둠원들의 협의 내용으로 보아 ‘장애인 직업 훈련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주제에 맞게 글쓰기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II. 본론-4. 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를 위해 직업 훈련을 개선해야 함을 제시함.’이라는 내용은 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관련된 내

용이다. 때문에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주제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가)-1에는 장애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과 장애인 직업 훈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나)에는 장애인 직업 훈련이 몇몇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어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음은 제시되어 있으나, 직업 훈련이 집중된 몇몇 직업군이 전문직 직업군인지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군인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직업 훈련이 전문직 직업군과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군 중 어느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의 유형에 따른 전략 확인하기

동아리 공지 사항에서 밝힌 ‘참소리’ 동아리의 창단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문화적 감성을 공유한다는 ‘참소리’ 연주회의 취지는 ‘하운’의 초대장에서는 ‘참소리’의 창단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우’의 초대장에서는 ‘참소리’ 연주회의 취지나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우’가 ‘하운’에게 ‘독자들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좋겠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원우’의 초대장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연주를 한다는 내용과 우리 학교 동아리들의 활동을 소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아리 공지 사항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하운’의 초대장에는 ‘참소리’의 창단을 알리는 관현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이 있지만, ‘원우’의 초대장에는 제목이 없다. ④ ‘하운’의 초대장에는 ‘즐감하세요’라는 독자와 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⑤ ‘원우’의 초대장에는 일시와 장소 같은 중요한 내용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운’의 초대장에는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11. [A형 11번과 동일]

12. [A형 12번과 동일]

[문 법]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단어에 적용하기

<보기1>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가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에서 ‘깍두기’는 ‘ㄱ’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ㄷ’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깍두기’가 아닌 ‘깍두기’로 적어야 한다.

14.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충의사’에서 ‘의’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4. 규정으로 보아 [ㅣ]로 발음하지만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붙임1]의 규정에 의해 ‘ui’로 적어야 한다. ① ‘승례문’에서 ‘례’의 ‘ㄷ’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

항 다만2.로 보아 ‘ㄷ’로 발음하며,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로 보아 ‘ye’로 표기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도예촌’에서 ‘예’의 ‘ㄷ’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 규정으로 보아 [ㄷ]로 발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퇴계원’에서 ‘계’의 ‘ㄷ’은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 규정으로 보아 [ㄷ]나 [ㄷ]로 발음할 수 있으나, [ㄷ]로 발음되는 경우 ‘e’로 표기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은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친 문장에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로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ㅁ, ㅂ, ㅅ’의 변화 탐구하기

ㄱ의 ‘ㅁ’과 ‘ㅂ’의 첫째 음절 ‘ㅁ’과 ‘ㅂ’는 현대 국어에서 각각 ‘ㅁ’과 ‘ㅂ’로 바뀌고, 둘째 음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ㅅ’은 현대 국어에서 ‘ㅇ’로 바뀐다. 이를 통해 ‘ㅁ’과 ‘ㅂ’ 모두 첫째 음절의 ‘ㅅ’은 ‘ㅁ’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ㅅ’은 ‘ㅇ’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ㄱ에 쓰인 ‘ㅅ’가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ㄱ을 보면 ‘ㅁ’과 ‘ㅂ’의 ‘ㅅ’은 변천 과정에서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ㄴ에서 ‘ㄷ’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하여 ‘ㄷ’로 바뀐 것을 볼 때, ‘ㄷ’의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ㅂ’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고박’은 ‘ㅂ’ 뒤에 양성 모음 ‘ㅏ’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고’와 ‘ㅂ’로 변화했고, ‘구벼’는 ‘ㅂ’ 뒤에 음성 모음 ‘ㅓ’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구’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ㅂ’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ㅁ’과 ‘ㅂ’은 현대 국어에서 각각 ‘ㅁ’과 ‘ㅂ’로, ‘고박’과 ‘구벼’는 현대 국어에서 각각 ‘고’와 ‘구’로 변화한 것을 볼 때, ‘ㅂ’과 ‘ㅅ’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ㅂ’과 ‘ㅅ’이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사 회]

17. [A형 16번과 동일]

18. [A형 17번과 동일]

19. [A형 18번과 동일]

20. [A형 19번과 동일]

[인 문]

[21~23] <출전> 김교빈 외, 「함께 읽는 동양철학」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주자학과 양명학이 핵심적인 명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을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두 사상의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② 5문단의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1문단의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가 곧 ‘이’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왕수인은 ‘양

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증시했고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를 치양지라고 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당나라는 지방 세력에 의해 멸망했고,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다는 내용에서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사례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이므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경험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본래부터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가지고 있다는 왕수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왕수인의 관점에서 <보기>의 글을 비판하는 진술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는 양명학과 달리 주자학이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3문단의 신하들은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본 주자학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과학]

[24~26] <출전> Neil R. Carlson, 「생리심리학」

24.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수면의 과정을 비-REM수면과 REM수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글로,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4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20~50%’, ‘50%’와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수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글 전체에서 수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전체 흐름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와 3문단 두 번째 문장의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면에 대한 이해와 수면방추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㉔는 수면방추 ㉔는 K-복합체 ㉔는 세타파 ㉔는 델타파이다. 이 중 델타파는 깊은 수면 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제대로 잠을 이루어지 못하는 재형이는 수면이 단계별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게다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므로 델타파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와 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겠군’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으나 수면이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깊은 잠의 단계에서 측정되는 델타파는 수면이 보다 선우에게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선우는 깊은 수면을 유지하였고, 수면이는 소리가 날 때마다 자주 깬으며 수면도 유지하지 못했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선우가 수면이보다 K-복합체와 수면방추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재형이는 자다 깨다를 반복하여 잠이 유지되지 못했으나,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재형이가 선우에 비해 수면방추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K-복합체가 소음으로 인해 잠이 깨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라고 진술되어 있고, 6문단에서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REM수면이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예 술]

[27~28] <출산>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미니멀리즘은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재료, 소재, 형태 등의 매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가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기 쉽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 두 번째 문장의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 네 번째 문장의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 다섯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의 특징은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는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바닥에 배치한 것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시선을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이동시켜 감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 작품이 놓인 공간을 관람만을 위한 전방대로서가 아닌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으로 만들어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 마지막 문장의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 네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 여섯 번째 문장의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단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은 감상자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 서]

[29~30] <출전> 이이, 「성학집요」

29.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를 보면 정약용은 의심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독서 태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옳고 그름을 비교한다는 의심의 과정을 통해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한다는 ㉔의 독서 태도가 가장 유사하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독서의 전략 파악하기

이 글에는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독서 계획 세우기, 독서 능력에 맞게 분량 조절하기,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 탐색하기,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하기 등의 독서 전략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글의 구조를 통해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작자미상, 「적성의전」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안평국 왕비는 성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러기를 통해 성의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므로,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성의는 도사의 말을 듣고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으로 떠났다. ④ 안평국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왕비는 항의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으며, 그 행실이 불측하다고 했다. ⑤ 성의의 어머니인 안평국 왕비는 성의가 구한 일영주를 먹고 병이 나왔다. 따라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성의는 ‘금각당’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으므로, ‘금각당’을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성의 있던 방’에서 기러기가 안평국 왕비의 편지를 다리에 매고 출발하여 ‘금각당’에 있는 성의에게 전달하므로 ‘성의 있던 방’과 ‘금각당’은 기러기를 매개체로 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성의 있던 방’에서 왕비는 성의의 부재로 인해 큰 슬픔을 느끼고, ‘금각당’에서 성의와 공주는 같이 음식을 먹고 약기를 연주하는 등 친교를 나누었으므로 ‘성의 있던 방’은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금각당’은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안평국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봉서’로 인해 성의는 눈을 뜨게 된다. 따라서, ‘봉서’의 서사적 기능은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이다.

3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는다.’는 뜻이므로, 기러기를 통해 성의에게 편지를 보낸 왕비가 했음직한 말이다.

①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을 의미한다. ②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챌 이익.’을 이르는 말이다. ⑤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돌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전시가]

[35~36] <출전>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모르리라’, ‘흐노라’ 등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화자

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② [A]의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헬로다 /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B]의 ‘술 아래 길로 내고 못 우회 덕을 뽐니’, [C]의 ‘집 두해 츠차리 뜯고 문 알쩍 물근 십 기러’, [D]의 ‘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므르거든 바깥 물 마시니’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E]의 ‘이 몸이 쪼 었더ᄃᆞᆫ 무릉인(武陵人)인가 ᄃ노라.’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연 속을 살아가는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D]의 ‘늬의외 부운(浮雲) ᄃ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랴’에서 ‘이시랴’는 설의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⑤ [D]의 ‘부운(浮雲) ᄃ튼 부귀(富貴)’는 직유법을 사용한 부분으로, ‘뜯구름’이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부귀’가 헛된 것이라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따라 감상하기

[A]와 [B]에는 모두 화자가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고, 화자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연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② [A]는 초·중장에서 ‘지당’에 ‘활수’가 들어 그 속에 ‘고기’가 노는 모습과 ‘송음’에 맑은 바람 소리가 나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에서 이를 즐기느라고 돌아갈 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B]는 초·중장에서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덕’을 쌓으니 바람, 달, 안개, 노을이 좌우에서 오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에서 이 사이에서 ‘한가히’ 앉자 즐기느라고 늙는 줄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③ [C]에는 화자가 ‘츠차리’ 뜯는 공간인 ‘집 두해’와 ‘물근 십’ 걷는 공간인 ‘문 알쩍’를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D]에는 화자가 ‘버구렛 밥’ 먹고 ‘바깥 물’ 마시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④ [C]는 초·중장에서 ‘츠차리’ 뜯고 ‘물근 십’ 걸어 ‘기장밥’ 짓고 ‘산채궁’ 삶아 먹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중장에서 ‘풍미(風味)이 족(足)ᄃᆞᆫ 내 분인가 ᄃ노라’라고 하여 이러한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D]는 초·중장에서 ‘버구렛 밥’ 먹고 ‘바깥 물’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중장에서 ‘늬의외 부운(浮雲) ᄃ튼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랴’라고 하여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도원’이라는 이상향에 견주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무릉인’이라고 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소설]

[37~39] <출전> 이태준, 「사냥」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양복 조끼’는 자신이 도야지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질까 불안하여 손을 ‘깍지도 꺾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본다. 그리고 ‘허리춤을 굽적거리려도 보’고,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를 교체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에서 결말 암시를 위해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작품에서 과거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을 삽입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3인칭의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시점 소설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중심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늙은 포수’에 의해 ‘양복 조끼’가 사냥에서 일어난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진 후,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후, 범인이 밝혀지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안도감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개운치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윤’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한 사람이므로, ‘윤’이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한’은 ‘늙은 포수’가 도야지를 훼손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자,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이 어떤 이도 사냥으로 인한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늙은 포수’가 사냥으로 잡은 도야지를 훼손한 것이 ‘양복 조끼’였음이 그의 죄에 의해 밝혀지고, ‘구장’은 ‘늙은 포수’가 ‘양복 조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늙은 포수’가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한’은 사냥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야성예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와 달리 ‘늙은 포수’에게 사냥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장’은 ‘양복 조끼’의 행위에 대해 ‘늙은 포수’에게 사과하며 ‘요 너머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녀머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지요.’라고 말하며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편집실’과 ‘교실’은 ‘한’의 ‘손이 바쁘던 때’에 그가 있었던 공간으로, ‘한’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편집실’과 ‘교실’을 비밀상적 공간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한’은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비밀상적인 야성의 세계를 갈망한다. ‘촌길’과 ‘험준한 산마루’는 이러한 비밀상적 야성의 세계에 있는 공간이므로, ‘촌길’과 ‘험준한 산마루’가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한’은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들일 것’이라면서, ‘늙은 포수’가 야박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추궁할 때,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늙은 포수’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양복 조끼’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주재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주재소’는 ‘양복 조끼’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위압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주재소’가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밀상적인 세계 또한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를 통해 ‘한’은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이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한’에게 있어 ‘서울’

은 식민지의 지식인이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이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시]

[40~42] <출전>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최승호, 「공터」

40. [출제의도] 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분단 상황의 조국을 ‘너의 손목’, ‘부러진 허리’, ‘너의 눈동자’의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회복의 공간이라는 국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며, (나)는 공터를 ‘말이 없다’, ‘베풀어주고’, ‘무심히 바라볼 뿐’의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묵묵히 베풀어주는 공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1연의 ‘고드름’은 <보기>에서 밝힌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이 시에서 화자는 통념상 빈 공간으로 인식되는 ‘공터’에 ‘고요’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공터’를 주목하면서 ‘바람, 풀씨, 꽃’ 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공터’가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극]

[43~45] <출전>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43. [A형 43번과 동일]

44. [A형 44번과 동일]

45. [A형 45번과 동일]